

제2독서

역할 설명

신약성경(바오로 서간 등)의 말씀을 봉독하는 역할입니다. 제1독서와 방식은 동일하나 본문 성격이 다릅니다.

준비사항

- 서간문 특성상 문장이 길고 복잡한 경우가 많으니 미리 여러 번 읽어볼 것
- 쉼표, 마침표 위치 미리 파악해서 어디서 끊을지 표시해두기
- 가능하다면 미사 전례서나 성경 본문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 권장
- 미사 최소 15분 전 도착
- 단정한 복장 착용

수행 방법

이동 및 경례

- 자리에서 일어나 독서대로 이동할 때 제대를 향해 먼저 경례
- 독서대에 도착하면 잠깐 멈추고 회중을 바라본 후 시작

낭독

- 서간문은 편지 형식이므로 따뜻하고 진지한 톤으로 읽기
- マイ크와 입 사이 거리는 주먹 하나 정도 (약 10~15cm)
- 쉼표에서 1박, 마침표에서 2박 쉬는 느낌으로 읽기
- 마지막: '주님의 말씀입니다'
- 신자들이 '하느님 감사합니다'로 응답할 때까지 독서대에서 머물며 기다리기
- 응답이 끝난 후 제대를 향해 경례하고 자리로 돌아오기

시작 멘트: "제2독서. 로마서 X장 X절~X절"

마무리: "주님의 말씀입니다"

→ 신자 응답: "하느님 감사합니다" (응답이 끝날 때까지 대기)

자주 하는 실수

- 바오로 서간의 긴 문장에서 숨 끊는 위치를 잘못 잡는 것 → 미리 표시해두기
- 제1독서와 톤이 너무 똑같아지는 것 → 조금 더 따뜻한 느낌으로
- 너무 빠르게 읽는 것 → 천천히, 또렷하게
- 신자 응답 전에 바로 내려오는 것 → 응답 끝날 때까지 대기
- 내려올 때 제대 경례를 잊는 것

- 서간문은 편지를 읽는 느낌으로, 따뜻하고 진지하게 읽으세요
- 긴 문장은 미리 어디서 끊을지 연필로 표시해두면 좋아요